

요 약

▶ 해외시장진출에 있어서 건설전문가 부족 현상

- 국내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 전문인력은 양과 질 모두에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임.
- 과거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양질의 인력을 비교적 저가에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들어 인건비에 대한 경쟁력은 중국이나 터키, 인도 등에 의해 잠식되고 있음. 더욱이 시공이나 설계 등 직접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 가격 대비 생산기술 측면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기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중국과 인도 등 미래의 인재공장으로 등장하게 될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인건비 경쟁시장에서 전문기술 경쟁시장으로 진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설인력 수급 현황 및 현안

- 건설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은 강의나 교재를 통해 얻는 방식과 사업 현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습득하는 도제 방식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음. 현재까지 국내 업체들의 해외 건설 시장 전문가의 양성은 강의나 교재가 아닌 도제 방식을 통한 대물림이었다는 평가임. 그러나 이제는 도제 방식의 핵심이 되는 실무학습교사(일종의 'mentor')진의 고령화로 인해 맥이 끊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글로벌 건설전문가 양성 방향

-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및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장 혹은 팀장급 이상의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함. 개별 사업에서 팀장급 이상에게 요구하는 역량 비중은 기업경영(business management) 부문은 약 10%이나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혹은 프로세스관리 부문은 7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임.
-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기술력 부문보다는 리더급 기술자를 포함한 관리전문인력의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경쟁 상대국 기업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기업들로 정하여 역량을 키워야 중국이나 터키 등 개발도상국 기업들과 전문기술 역량에서 차이를 넓힐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건설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상(안)

- 글로벌 건설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국내 내수시장 중심이 아닌 세계건설시장에서 기술 및 프로젝트관리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전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임.
- 본 양성 프로그램(안)은 구상안에 불과하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여야 할 국가적 R&D 과제임.